삼성전자, 바이오에 힘 싣는다!

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 … 1246억원 출자에 관련설비 매각

삼성전자가 바이오로직스에 1246억원을 출자한다.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에 1246억원을 출자한다고 2월21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1246억원을 2012년 2월, 8월, 2013년 2월, 8월 등 4차례에 걸쳐 분할 출자할 예정이며, 합작기업에 바이오시밀러 관련 설비 등의 자산도 매각할 방침이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이 바이오젠아이텍이 설립하는 바이오시밀러 개발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투자"라며 "양도가액은 460억원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 개발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29일 삼성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총괄하는 합작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9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으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엔지니어링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6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1>